

원방테크, 2021년 상반기 매출액 988억원**▶ 2차전지 드라이룸, 반도체 클린룸 등의 지속적인 수주 증가로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2021-08-17> 글로벌 클린룸/드라이룸 전문기업 원방테크(053080, 대표이사 구자겸, 김병진)가 2021년 반
기보고서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88억 원, 2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7%, 83% 감소한 수치이다.

원방테크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공장을 수주하여 큰 실적을 기록했으나 올해 수주한 미국 조지아 배터리 2공장 드라이룸 공사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 지연에 따라 상반기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매출은 인식되지 못하고 비용만 투입됐다"라며 "다행히 지난 4월 양사가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삼성전자 평택 P3 라인의 클린룸 모듈 시스템 실링 공사와 모듈 외조기 등 프로젝트를 지난 6월과 7월에 400여억 원 규모로 수주하여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반기에 다수의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하고 있어 올해 수주물량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주금액은 작년 전체 수주금액 2,065억 원 대비 32% 초과 달성한 2,732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주잔고 역시 작년 말 수주잔고 1,388억 원 대비 85% 증가한 2,568억 원을 기록하여 올해 하반기에 실적 증대가 예상된다.

특히, 원방테크가 핵심사업으로 집중하고 있는 2차전지용 드라이룸 사업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1년 상반기 1,040억원의 누적 수주금액 달성에 이어 하반기에는 SK이노베이션 헝가리 2공장 및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미국, 말레이시아 등의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드라이룸 수주 확보가 예상된다. 실제 올해 하반기 이후 국내 배터리 제작사가 해외 자동차 업체와의 미국 내 합작을 추진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공장 설립수요의 증대에 따른 원방테크의 수주물량 증가가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4월 SK에코플랜트와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한 데 이어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서버 내 변화 감지, 운영 효율개선, 에너지 절감 등이 가능한 모듈러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이라며 "하반기 개발이 완료되며 원방테크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방테크는 지난 8월 11일 공시를 통해 무상증자를 발표했다. 회사는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많은 주주가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주배정기준일은 8월 27일이며 이후 9월 14일경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